

정부 녹색정책 육성 '맞손'

전북대, 한국중부발전과 공식 협약...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학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정책과 관련한 산업 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중부발전(주)(사장 김호빈)과 손을 맞잡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22일 오후 전북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김호빈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학협력과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보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한국중부발전(주)은 전북대 건물 및 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 옥상 및 주차장, 기타 부속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이외에도 육상·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중부발전(주)은 전북대학교 건물 지붕 및 부지 등에 최대 10MW 규모의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이 수익금의 일부를 공유해 대학 전기요금 절감과 교육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22일 오후 전북대학교 총장실에서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사진 오른쪽)이 정부 저탄소 녹색정책과 관련한 산업 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정책에 발맞춰 우리 전북 지역의 저탄소 정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호빈 사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뜻깊은 일을 글로벌대학인 전북대학교와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태양광 사업개발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뿐만 아니라 수익 공유를 통해 전북대학교의 교육복지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석대 대학일자리본부 금감원과 금융특강 공동개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22일 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금융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 등 80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강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 등 80명이 참석했다. 이는 사회 진출을 앞둔 취업준비생들에게 금융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금융감독원 전문 강사가 올바른 자금관리와 현명한 지출, 목돈 모으기, 보이스 피싱 대처 방법 등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여자들의 이해와 만족도를 높였다.

이승미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취업과 창업 준비하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평생교육원 이달 말까지 작품전시회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평생교육원이 이달 말까지 교내 60주년기념관에서 '2023 평생교육원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민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아크릴화, 유화, 민화, 수채화, 캘리그래피, 생활도예, 사진 등 교육과정 수강생들 작품 총 100여 점이 선보인다.

특히, 민화 과정 수강생 송경희 씨의 작품 '궁 모란도'는 제19회 전국 운고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유월순 씨의 '부부의 봄날', 이태경 씨의 '소소한 풍요로운 일상', 이영현 씨의 '엄마의 봄날'은 전라북도 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했다.

또한, 한중 양국 간 평생교육원 시스템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 내방한 중국 서주외과대학 부총장 임철도 전 시를 관람해 의미를 더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중대산업재해 예방 선제대응

도교육청, 교육기관 건설공사현장 안전길잡이 제작·배부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나섰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 건설공사현장 안전길잡이를 제작·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분청을 비롯한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실제 재해사례와 예방책을 수록한 이 자료는 시설공사 업무담당자들이 발주자로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역할과 안전 수칙을 익히고, 안전의식 및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 최초로 제작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역할 및 단계별 주요 업무 안내 △건설공사 사망재해 다발작업공종 및 재해예방 대책 △교육기관 건설공사 사망재해 사례별 재해예방 대책 △건



교육기관 건설공사현장 안전길잡이 책자

설현장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및 안전수칙 등이 있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 전체 단계에 걸쳐 영향력 있는 발주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교육 현장 업무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여 교육기관 건설공사 현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22일 한의학과 4층 세미나실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교육을 진행했다.

우석대 창업보육센터, 예비창업자 대상 마케팅교육

'잘 팔리는 카피라이팅의 비밀' 김선민 석세스멘토링 대표 특강

우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22일 한의학과 4층 세미나실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및 교직원과 각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관계자, 예비창업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선민 석세스멘토링 대표가 '잘 팔리는 카피라이팅의 비밀'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종석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교육

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신규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는 현재 27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시제품 제작과 특허 출원, 기술 및 경영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소리·움직임 기반 융합교육, 건강에 긍정 효과'

전북대 엄희정 특임교수, 리드믹 교육 심폐건강 효과 최초 입증

전북대학교 엄희정 특임교수가 소리와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교육인 리드믹(Rhythmic) 교육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최초로 입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엄 교수는 융합 예술·교육·치유 분야인 리드믹이 교육 대상자의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과 시간을 구성하면 심폐 기능 등 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했다.

20~4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소리와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자연스러운 걷기, 호흡, 즉흥 표현을 유도하는 리드믹 프로그램을 진행, 운동부하 검사 실시, 운동강도 연구 수행으로 리드믹 프로그램의 효과



를 밝혀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엄 교수는 "리드믹 운동 프로그램의 심폐 기능 기반 운동강도 설정에 관한 연구"에 공동저자로 참여, SCOPUS 등재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tion'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인제대 김대영 교수(스포츠웰스케어학과), 류하린 박사(연구원(디지털헬스케어학과))과 함께 수행했다. 엄희정 교수는 "리드믹 교육은 신

체 본래의 기능을 되찾는 소매틱스와 연관돼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활동"이라며 "이번 연구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건강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엄 교수는 2020년 리드믹의 본거지인 독일 드레스덴 헬레리우 리드믹 협회에서 사상 첫 외국 국적자 임원으로 취임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지원하고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2023 전북 예술융합인재 교육' 연구 책임자로, 전북대 한현석 교수, 남해경 명예교수, 권대규 교수 연구팀과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22일 익산 남성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 및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 공동체 만나 전북교육 발전 방안 모색

서거석 교육감, 익산 남성고서 교직원·학부모 등과 간담회 남성여고·남성중·남성여중 등 4개 학교 교장들과도 소통

서거석 교육감은 22일 익산 남성고등학교를 방문해 이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서 교육감의 학교 방문은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원과 학생인권 의 조화, 학력 신장,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전북 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서 교육감은 이날 남성고, 남성여고, 남성중, 남성여중 등 4개 학교 교장들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서 교육감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기에 학교를 직접 찾아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을 만났다"면서 "앞으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흡연·음주·마약으로부터 학생 건강 지키다

도교육청, 고3 대상 '찾아가는 학생 건강증진 문화체험형 교육'

전북도교육청이 고3 학생들을 위한 문화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의 건강증진을 돕고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 문화체험형 프로그램을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을 흡연, 음주 및 마약 예방에 대한 뮤지컬 공연으로 이뤄졌다.

뮤지컬 '노담 사이키스'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겪는 흡연·음주에 관한 에피소드를 판타지 소재로 흥미롭게 그려내며 담배와 술에 대한 악영향을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이날 설명회는 승진 임용, 인사관리 기준, 승진기간점 등 변화되는 인사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더불어, 인사업무 담당자 간 소통과 협력으로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경력교사의 특정지역 및 특정학교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방식 도입 △승진제도에서는 도서·벽지, 농어촌학교 이외의 학

교 규모별 가산점 신설 △신설학교 및 전환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 신설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승진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 설명, 4세대 나이스 인사기록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인사제도 개편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학교 구성원들이 어우러져 수업혁신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력과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시발점"이라며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맞게 학생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에 중점을 두고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뮤지컬 형식으로 고등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춰 설계됐다.

뮤지컬 공연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4일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시기 문체부건강과장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에게는 유해약물 예방 교육은 꼭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하며 학교 중심의 흡연·음주·마약 예방 문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저경력교사 집중 현상 해소방안 안내

도교육청, 도내 중·고교 인사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일 참조내 시청각실에서 도내 중·고교 및 특수학교 인사업무담당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등 교원 인사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승진 임용, 인사관리 기준, 승진기간점 등 변화되는 인사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더불어, 인사업무 담당자 간 소통과 협력으로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경력교사의 특정지역 및 특정학교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방식 도입 △승진제도에서는 도서·벽지, 농어촌학교 이외의 학

도교육청, 퇴직교장 교육활동 회복 멘토단 역량강화 연수

전북교육청은 22~23일 이틀간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퇴직교장 교육활동 회복 멘토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치유·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13일 퇴직교장 62명을 교육활동 회복 멘토로 위촉했다.

이번 연수는 현지 교장으로부터 변화된 학교 현장 모습 안내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공동체 지원 방안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에 멘토단은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 고충상담, 교직상담, 자금지회복을 통해 교실 현장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